



보도 일시	배포시	배포 일시	2022. 10. 23.(일) 14:00
기획재정부 <총괄>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귀범 (044-215-2750)
		담당자	사무관 이상홍 (lsh0622@korea.kr)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결과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10.23.(일) 12:30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경제수석 최상목

- 금일 회의에서는 최근 변동성이 높아진 회사채시장과 단기자금시장 동향 등을 점검하고, 시장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별첨) 경제부총리 발표문
(참고1~4) 주요 시장안정조치 세부내용



기획재정부 <총괄>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귀범 (044-215-2750)
		담당자	사무관 이상홍 (lsh0622@korea.kr)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	책임자	팀 장 김경록 (044-215-2850)
		담당자	사무관 김선익 (ksi1206@korea.kr)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홍성철 (044-205-3702)
		담당자	사무관 허 정 (huliber@korea.kr)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	책임자	과 장 정진훈 (044-201-3337)
		담당자	사무관 최준녕 (bonafide51@korea.kr)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변제호 (02-2100-2830)
		담당자	서기관 태현수 (hstae@korea.kr)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책임자	과 장 고상범 (02-2100-2850)
		담당자	사무관 이정찬 (jeongchanlee@korea.kr)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책임자	팀 장 최창호 (02-759-4181)
		담당자	조사역 진형태 (htjin0603@bok.or.kr)
금융감독원	감독조정국 거시감독팀	책임자	팀 장 이민규 (02-3145-8172)
		담당자	선 임 송하균 (larrysong@fss.or.kr)

금일 개최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최근 변동성이 높아진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안정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정부와 한국은행은
대내외 복합 요인으로 인해
현재의 시장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필요시에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시장 불안에 적기 대응해 나갈 것 입니다.

특히, 오늘 참석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선제적이고 충분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최근의 회사채 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과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시장안정조치에 더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α 규모”로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중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는
1.6조원 규모의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하여
내일(10.24일)부터 시공사 보증 PF-ABCP 등
회사채·CP 매입을 재개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펀드 자금요청(capital call) 작업도 속도를 내어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토록 하고
필요시 추가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 및 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2배로 확대하고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발행한 CP도 매입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부동산 PF-ABCP 관련 시장불안을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PF-ABCP 차환 어려움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이 우선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3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추가 지원규모도 최대한 확충하겠습니다.

넷째, 이러한 유동성 지원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대출 등의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이외에도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신속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부동산 PF 시장 불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안전부 발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드립니다.

아울러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차환 지원과
본PF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 보증지원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완화 등
PF시장 전반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금융기관 등 시장참가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장동향과 애로사항을 즉시 파악하여 대처하고,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시장교란행위 및
악성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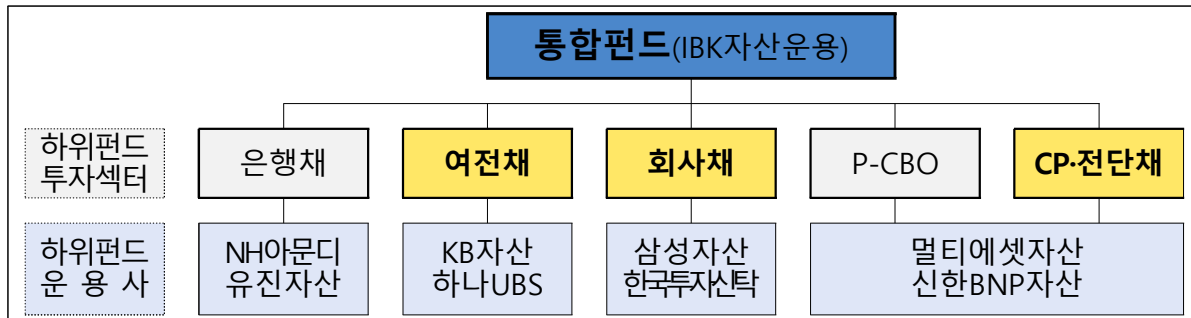
채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 ◇ 채안펀드 가용재원 1.6조원 매입재개(10.24일~)
- ◇ 추가 캐피탈 콜을 위한 작업을 즉시 시작해 11월초까지 완료

□ 채안펀드 개요

- (규모) 총 20조원
- (약정기관) 총 83개 금융기관(은행·생보·손보·증권 등 유관기관)
- (운용현황) 투자잔액 1.4조원 / 여유재원 1.6조원 → 즉시투입 가능
- (지원방식) 펀드를 통해 회사채(AA- 이상), CP·전단채(A1), PF-ABCP(A1), 여전채(A+ 이상) 등에 투자

< 채안펀드 구조도 >



□ 향후 계획

- (여유재원(1.6조원) 매입재개) 10.24일부터 회사채·CP 등 만기도래 차환물량에 대해 매입요건 충족시 매입 추진
- (추가 캐피탈콜 실시) 금융회사(83개)에 대한 추가 캐피탈콜 절차를 11월초 완료

참고 2

정책금융기관의 회사채·CP 매입 및 P-CBO 발행규모 확대

◇ 정책금융기관의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회사채·CP 매입(산은, 기은) 및 P-CBO 발행(신보) 규모를 8조원→16조원으로 확대

1. 산은-기은 회사채·CP 추가매입여력 확대 : 5.5조원 → 10조원

- (확대규모) 산은, 기은이 기운영중인 회사채 및 CP 매입프로그램의 잔여 매입여력을 5.5조원→10조원으로 확대
- (매입대상) 시장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채·CP 편입(기존과 동일)
 - (회사채) 일반 기업(금융회사 제외)이 발행한 회사채(대기업 BBB / 중견기업 BB / 중소기업 B등급 이상)
 - (CP·전단채) [현재] 일반 기업(금융회사 제외)이 발행한 CP·전단채 차환물(A3등급 이상) → [확대] 금융회사 발행 CP 등 포함

2. 신보 P-CBO 신규발행여력 확대 : 2.6조원 → 5.6조원

- (확대규모) 기존 코로나19 P-CBO 미매입잔액 0.6조원과 별개로,
 - 신규 P-CBO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5조원까지 신규 발행 여력 확보
- (지원대상) 신용보강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건설사·여전사* 지원 추진

* 신용등급 : BB- 이상

◆ 필요시, 상기 프로그램의 매입대상을 적극 확대

참고 3

증권금융을 통한 증권사 유동성 지원

◇ 증권금융이 증권사에 대해 3조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지원규모를 확충하려는 노력 병행

□ 증금은 최근 단기자금시장을 통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3조원 추가지원* 예정

* 상기 3.0조원 외 '22.7월 이후 1.8조원 기 공급

□ 증금은 증권사와의 RP거래, 증권담보대출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해 나갈 예정

○ 특히, RP거래ⁱ⁾ 및 증권담보대출ⁱⁱ⁾시 담보 제공대상 증권을 보다 다양하게 허용함으로써, 자금지원 저변을 크게 확대할 예정

i) 現 국공채·통안채·은행채 → (추가) 회사채(AA이상) 허용

ii) 現 RP 대상채권·상장주식 → (추가) 회사채(AA이상), CP(A1이상), ABCP(예금형), 증금채 허용

◆ 이르면 10.24일주부터 시장상황 및 자금수요 등을 보아가며 최대한 신속히 자금집행 예정

◆ 필요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원규모 확대 및 지원방식 다양화를 적극 추진하여 긴급 자금수요에 대응해 나갈 예정

참고 4

PF 사업자 보증 지원

◇ 부동산 PF 사업 중 우량 사업임에도 단기 유동성 위기에 노출된 사업에 '23년까지 총 10조원 규모 보증 지원

* HUG, 주금공 각 5조원 지원('22년 4/4분기 ~ '23년말)

□ 양호한 PF사업장에 대해 “브릿지론 → 본 PF” 전환되어 자금이 정상 공급될 수 있도록 본PF 대출에 대해 HUG·주금공이 신용보증 제공

구 분	HUG PF보증	주금공 PF보증
보증대상	✓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의 대상이 되는 분양·임대사업	✓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서울 200세대, 경기도·광역시 300세대 기타 400세대 공공 택지 100세대 이상 분양·임대사업
시행사 요건 (선투입금)	✓ (분양) 토지비의 10% 또는 총사업비의 2% ✓ (임대) 총사업비의 5%	✓ (시공능력 100위 이내) 토지비의 5% ✓ (시공능력 200위 이내) 토지비의 10%
시공사 요건	✓ HUG 신용등급 BB+ 이상 & ✓ 시공순위 700위 이내 ✓ 책임준공의무 부담	✓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 BBB- 이상 ✓ 시공순위 200위 이내 ✓ 책임준공의무 부담
대출한도	✓ (분양) 총사업비의 50% ✓ (임대) 총사업비의 70%	✓ 총사업비의 70%
대출금리	✓ CD(3개월 금리) + 1.50%	✓ 은행 자율설정
보증금액	✓ 대출금액의 100%	✓ 대출금액의 90%
보증료	✓ 심사등급에 따라 차등 (일반사업 : 0.563%~1.104%)	✓ 신용등급과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 (0.3%~0.65%)
대출기관	✓ 업무협약 체결한 5개 은행 등	✓ 업무협약 체결된 16개 은행

※ HUG의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

▶ (보증대상)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사업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보증금액)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자로부터 받게 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

◆ 필요시, 한시적으로 사업자보증 대상 확대 · 요건 완화 등 추가검토